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테슬라의 실주와 혼조된 증시

- 주요 지수 혼조: 나스닥 상승 0.6%, S&P500 상승 0.4%, 다우 하락 0.1%
- 테슬라 주가, 트럼프 2기 자율주행규제 완화 전망에 5.6% 급등
- 엔비디아, 블랙웰 차세대 칩 서버 과열 문제로 1.3% 하락

Summary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함. 나스닥 지수는 0.60% 상승한 18,792.43을 기록하며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보였음. S&P 500 지수도 0.39% 상승하여 5,893.62에서 거래를 마무리함.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전망에 따라 테슬라가 5.62% 급등하며 나스닥과 S&P500의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임.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13% 하락하면서 43,389.60에서 마감, 블루칩 지수의 부진을 보여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14% 상승했지만,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의 서버 과열 문제 보도로 하락세를 보임. 러셀 2000 지수는 0.15% 상승함. 주요 경제지표로는 NAHB 주택 시장 지수가 11월 46으로 상승하여 7개월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공화당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개선이 반영된 수치임.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견조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 시장에 안정감을 주었음.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증시 혼조세를 나타냄. 미국 기업들 간 기술주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가 향후 경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다우 -0.13%, 나스닥 +0.60%, S&P500 +0.39%, 필라델피아 반도체 +1.14%, 러셀2000 +0.15%)

특징종목

슈퍼마이크로(+16%)는 향후 실적 업데이트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음. 특히 지연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음. 테슬라(+5.6%)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주행차 프레임워크 지원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CVS 헬스(+5.4%)는 투자자의 압박에 따른 이사회 개편으로 주가가 상승했음. 경영진 강화로 향후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됨.

반면, 엔비디아(-1.3%)는 신형 블랙웰 AI 서버의 과열 문제로 출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했음. 이와 함께 대만산 칩에 대한 관세 우려가 AI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아마존(-0.5%)은 제프 베조스의 대규모 주식 매각이 주가 하락을 초래했으며, AI 이미지 정확성 문제도 우려를 더했음. 월마트(-0.2%)는 시장 전반의 하락세에 따라 특별한 악재 없이 소폭 하락세를 보임. 반면, 넷플릭스(+2.8%)는 제이크 폴과 마이크 타이슨 복싱 경기로 많은 시청자를 끌어올리며 주가 상승을 이끌어냄.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주요 글로벌 증시 종목들의 주가 변화에 영향을 미침.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20분, KST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7로 약간 상승하였음.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미국 달러인덱스는 106.22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졌기 때문임.

외환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통화에 대해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 특히 유로/달러는 1.06으로 0.54% 상승, 파운드/달러도 1.27로 0.49% 상승함.

WTI 원유 가격은 하루 동안 3.39% 상승하여 69.29 달러를 기록함. 이는 최근 원유 공급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 기인함.

금 가격은 1.9% 상승하여 2611.22 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품 시장 전반에 걸쳐 강세를 보였음. 이러한 동향은 미국 경제의 회복력 증가와 맞물려 각종 금융 자산들의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임.

Market Snapsho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S&P500 (SPY)	+0.4	배당성장 (SCHD)	+0.6
S&P500 동일가중 (RSP)	+0.4	미 국채 (AGG)	+0.1
나스닥100 (QQQ)	+0.7	미 장기 국채3X (TMF)	+0.4
다우 (DIA)	-0.1	매그니파센트 7 (MAGS)	+1.2
대형성장 (MGK)	+0.4	인공지능 (AIQ)	+0.4
소형주 (IWM)	+0.2	메타버스 (METV)	+1.2
인도 (INDA)	+0.5	클라우드 (CLOU)	+1.5
중국 (FXI)	+1.9	2차 전지 (LIT)	+0.5
반도체 (SOXX)	+1.3	로봇 (BOTZ)	+0.3
부동산/리츠 (VNQ)	+0.7	방위산업 (SHLD)	-0.7
헬스케어 (XLV)	+0.1	스마트 그리드 (GRID)	+0.2
항공 (JETS)	-2.0	미국 인프라 (PAVE)	+0.5
소프트웨어 (IGV)	-0.0	친환경 (ICLN)	+0.4
바이오테크 (XBI)	+0.1	우라늄 (URA)	+0.4

US Sector Index				
S&P 500	종가	D-1(%)	D-5(%)	D-20(%)
에너지	729.6	+1.1	+1.2	+4.9
커뮤니케이션	328.3	+1.0	-1.5	+4.0
경기소비재	1,736.3	+0.8	-2.0	+8.8
부동산	271.5	+0.8	-0.5	-3.2
소재	578.0	+0.7	-2.1	-6.3
유틸리티	404.4	+0.7	+0.4	-2.8
필수소비재	866.6	+0.7	-0.0	-1.7
금융	830.6	+0.2	+0.2	+4.9
IT	4,487.4	+0.2	-2.1	-0.9
헬스케어	1,651.8	+0.0	-5.0	-7.4
산업재	1,172.5	-0.2	-3.1	-0.4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및 지수	종가	D-1(%)	D-5(%)
WTI	69.2	+3.3	+1.8	달러인덱스	106.21	-0.5	+0.6
Brent	73.3	+3.4	+2.2	유로/달러	1.0598	+0.6	-0.5
미국 천연가스	3.0	+4.8	+1.3	달러/엔	154.61	+0.2	+0.6
석탄	127.2	+1.0	+4.1	달러/역외위안	7.2269	-0.1	-0.0
금	2,614.6	+1.8	-0.1	달러/원(NDF)	1,391.2	-0.2	-0.6
은	31.2	-1.5	+0.9	비트코인	91,860	+3.0	+3.6
구리	9,094.5	+1.0	-2.5	이더리움	3,168	+3.4	+0.4
알루미늄	2,963.0	+0.5	-0.5	나스닥 크립토	4,644	+2.0	+3.6
밀	565.8	+2.0	-2.7	CRB 상품 (11/15)	334.50	-0.3	-0.6
대두	1,009.8	+1.2	-1.2	LME 금속 (11/15)	3,999	+1.2	-1.8
소고기	186.0	+0.4	+0.4	발틱 건화물 운임	1,785	-1.6	+7.5
돼지고기	83.3	+0.6	-3.0	컨테이너 운임(주간)	3,440	+91	-2,11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주요 스프레드	종가(%)	D-1(bp)	D-5(bp)
미국	4.41	-2.6	+11.0	미 국채 10-2년	13.2	-0.0	+8.3
한국	3.06	-2.0	+2.5	미-한 국채 10년	135.4	-0.6	-5.9
일본	1.08	+1.0	+7.9	미-일 국채 10년	333.1	-3.6	-8.1
독일	2.37	+1.7	+4.6	프-독 국채 10년	72.6	-0.001	-0.03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컨테이너 운임(주간)은 1M, 3M 대비 등락폭 기준. 괄호 안은 기준 날짜.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